



장현수

7년만에 한국 남녀 축구 10년만에 “북한 잡고 동아시안컵 우승하자”



조소현

한국 남녀축구가 북한을 상대로 동아시안컵(EAFF) 축구선수권대회(이하 동아시안컵) 사상 첫 동반 우승에 도전한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8일 북한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2005년 한국에서 열렸던 제1회 대회 이후 10년 만의 우승을 노린다. 슈틸리케호는 9일 북한을 상대로 2008년 중국 대회 이후 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채비를 하고 있다. 우승시 동아시안컵 통산 3번째다.

한국 남녀축구가 함께 우승을 하면 동아시안컵에서는 처음으로 한 국가가 동시에 2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된다.

△태극양자, 북한 반드시 꺾어야 우승 = 윤덕여호는 8일 오후 6시10분(한국시간)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북한과 사실상의 '결승전'을 갖는다. 남은 1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북한과 한국은 각각 2승으로 1,2위를 기록 중이다.

한국 여자축구는 1일 중국을 1-0으로 격파하고, 4일 2차전 상대인 일본마저 2-1 역전승을 거두며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4-2, 중국을 3-2로 꺾은 북한에 골득실에서 밀려 2위에 올라 있다. 대회 우승을 위해서는 북한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 비길 경우 우승컵은 북한으로 넘어간다.

슈틸리케호 9일

6년 4개월만에 재격돌

2000년 이후 1승 5무

승리해야 자력 우승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북한이 앞선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북한(8위)은 한국(17위)보다 9점이 높고, 역대 전적에서 한국은 1승1무13패로 절대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 역시 북한은 강철 체력을 앞

윤덕여호 8일

북에 골득실 밀려 2위

1승1무13패 열세지만

정신력으로 기필코 승리

세워 앞선 두 경기에서 7골을 몰아넣었다. 태극양자들도 역시 중국과 일본을 연파하면서 사기가 높고, 북한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신으로 뚝뚝 뚫어 또 한 번의 이변을 예고하고 있다.

△태극전사, 6년여만의 '남북대결' =

슈틸리케호도 9일 오후 6시10분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북한과 대회 마지막 일전을 치른다.

북한과의 A매치는 2009년 4월 서울에서 열렸던 FIFA 남아공 월드컵 최종 예선 이후 6년 4개월만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슈틸리케호는 1차전 중국을 2-0으로 제압한 데 이어 일본과는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북한은 일본에 2-1 역전승을 거뒀으나, 중국에 0-2로 밀리며 3위로 내려앉았다. 슈틸리케호는 북한을 잡으면 통산 3번째 우승을 확정짓는다. 무승부를 기록하면 뒤이어 열린

는 중국-일본전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패할 경우 우승은 물 건너간다.

FIFA 랭킹은 한국(52위)이 북한(129위)보다 높고, 역대 전적에서도 6승7무1패로 한국이 앞서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치른 6번의 경기 중 5번을 비기고 한 번을 한국이 승리하며 박빙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도 한국을 꺾으면 동아시안컵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어 총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태극 전사들은 북한을 반드시 잡고 자력으로 우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남북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



이청용



손흥민

夜好! 유럽리그 '킵오프'

내일 EPL 개막...기성용·이청용 '쌍용' 난타 분데스리가, 최다골 도전 손흥민 등 7명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유럽 프로축구가 8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시작으로 2015-2016 시즌을 출발한다.

이번 시즌 영국과 독일 무대에서 활약할 해외파 선수는 총 10명(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명, 잉글랜드 챔피언십 1명, 분데스리가 7명)이다.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스완지 시티의 기성용에게 팬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기성용은 선덜랜드 임대를 마치고 스완지 시티로 복귀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역대 한 시즌 최다골(8골) 기록을 세우면서 팀의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시즌 막판 무릎 뺏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별다른 후유증 없이 프리시즌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 시즌에도 활약이 기대된다.

크리스티안 펠리스의 이청용의 활약도

관심거리다. 이청용은 지난 2월 챔피언십(2부리그) 불턴에서 크리스티안 펠리스로 이적하면서 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했다. 부상을 떨쳐버린 이청용은 최근 국제 친선대회에서 골을 신고하는 등 예전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독일 무대에서는 단연 레버쿠젠의 손흥민의 활약이 기대된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11골,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합쳐 총 17골을 폭발했다. 2012-2013 시즌부터 두 시즌 연속 기록한 자신의 독일 무대 역대 한 시즌 최다골(12골)을 무려 5골이나 넘어선 수치다.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보유한 분데스리가 역대 한국인 한 시즌 최다골(19골) 기록을 깨지는 못했지만 올 시즌에는 새 기록이 세워질 수도 있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를 누릴 한국 선수는 손흥민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연합뉴스

구자철, 박주호(이상 마인츠), 김진수(호펜하임)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팀에 공헌하는 선수들이다.

구자철은 지난 시즌 초반 부상에 자신의 역대 분데스리가 최다골(7골)을 달성했고, 박주호도 분데스리가 16경기에 출전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호펜하임에서 뛰는 왼쪽 풀백 김진수도 19경기에 출전해 1도움을 기록하는 등 준수한 활약을 보였다.

지난 시즌 12경기에 출전해 무득점에 그친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은 부활을 노린다. 지동원과 같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는 중앙 수비수 홍정호는 시즌 후반 주전자리를 꿰찼다.

지난 시즌 브라운슈바이크로 임대돼 뛰다 레버쿠젠으로 복귀한 류승우도 리그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한 손흥민과 함께 '코리안 듀오'로 활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영국 2부리그인 챔피언십에선 퀸스파크 레인저스의 윤석영이 절치부심하고 있고, 3부리그로 추락한 위건 애슬레틱스와 결별한 김보경은 새 팀을 모색 중이다. /연합뉴스

KLPGA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오늘 개막

윤채영·고진영·박인비 동반 플레이 세계1위 박인비 맨뒤에 티샷 이유는

7일부터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1라운드에서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진 박인비(27·KB금융)와 고진영(20·넵스)이 리턴 매치를 벌인다.

둘은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디펜딩 챔피언 윤채영(27·한화)과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그렇다면 1라운드에서 누가 맨 먼저 티샷을 날릴까.

삼다수 마스터스 1라운드에서 이들 셋 가운데 '아너(honour)'는 윤채영이다. 윤채영 다음 순서는 고진영, 박인비는 맨 마지막에서 티샷한다.

박인비는 세계랭킹 1위인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골프여제'지만 1라운드 티오프 순서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밀렸다.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대회 1라운드 '아너'는 무조건 디펜딩 챔피언이다. 다음 순서는 직전 대회 우승자이다. 삼다수 마스터스 직전 대회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다. 그러나 우승자 점인지(21·하이트진로)는 삼다수 마스터스에 출전하지 않는다.

디펜딩 챔피언과 직전 대회 우승자 다음 순위는 상금랭킹이나 세계랭킹에 따른다. 한국프로골프 투어 상금랭킹에서 4위 고진영이 박인비보다 우선 순위이다. 고진영이 그래서 윤채영에 이어 두 번째로 티오프를 한다.

정창기 경기위원장은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대회이기에 한국 상금랭킹이 먼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조 편성과 티오프 순서는 모두 정해진 규정에 따른

다"고 덧붙였다.

한국 상금랭킹 순위가 없는 해외 초청 선수 두 명 이상이 동반 플레이를 치를 때는 세계랭킹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

만약 박인비와 스테이스 루이스(미국)가 나란히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대회에 출전해 1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치른다면 첫 홀에서 세계랭킹 1위 박인비가 세계랭킹 3위 루이스보다 먼저 티샷한다는 뜻이다.

다만 한국골프협회(KGA)가 주관한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올해 한국여자오픈에서는 김효주, 전인지, 양수진(25·파리게이츠)가 1라운드 동반 플레이를 펼치면서 1번홀 티오프 순서는 최근 한국여자오픈 우승 순서로 정했다.

김효주는 작년 한국여자오픈 우승자이며 전인지는 2013년 우승자, 그리고 양수진은 2010년 우승자이다. 양수진은 2012년 우승자 이미림(25·NH투자증권)과 2011년 우승자 정영주(23)가 출전하지 않아 양 역대 챔피언끼리 치른 동반 플레이에 합류했다.

물론 이런 티샷 순서의 원칙은 1라운드 첫 번째 홀에서만 적용된다. 1라운드 두 번째 홀부터는 직전 홀 성적에 따라 순서가 정해진다. /연합뉴스

정몽준 "17일 파리서 FIFA 회장 출마 선언"

정몽준(64)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오는 8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차기 회장 출마 공식 선언을 한다.

정 명예회장은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8월 12일 조지아에서 열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 경기를 찾아 유럽 축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각 도시를 돌며 유세 활동을 한 뒤 파리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

정 명예회장은 "FIFA가 장립된 곳이며 교통의 중심지여서 파리로 장소를 정했다. 출마 선언 전후로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도 만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에서 출마선언 하는 이유는.

▲세계축구 중심이 유럽이다. FIFA 역사가 111년이 됐는데 처음 참립됐을 때 파

리에 본부가 있었다. 또 플라티니가 파리에 있으니까 출마 선언 전후로 그를 만나는 게 어렵지 않기도 하다. 한국 사람으로서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그러나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신이 날 것 같다.

-당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유력 후보는 플라티니와 나라고 본다. 내가 잘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역대 회장 8명이 유럽계다. FIFA가 오늘 불명예스럽게 된 데에는 사무국 책임이 크지만 유럽 축구 지도자들의 책임도 작지 않다.

-당신도 FIFA에 몸담지 않았다.

▲FIFA 부회장을 17년 했는데 난 뭐했느냐하는 질문 많이 받는다. 난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축구와 FIFA가 잘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주장을 했다. 그런데도 블라티니와 아벨란제가 나를 비난하곤 했다.

'MJ'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때 더 설득력있게 내 얘기를 해야 했다.

-FIFA 부패 추문에 대한 생각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출마 브로셔를 만들면서 FIFA 100주년 기념행사 때 집행위원 단체 사진을 다시 보게 됐다.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껴야 할 사진인데 작 잡힐 뿐이다. (FIFA 부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누구나 자기는 여러 가지 규범, 구체적인 법률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FIFA는 지금 폐쇄적인 부패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연합뉴스